



보(洑)민족의 전승론적 고찰 -강원동해시 지역을 중심으로-



장 정 룡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jjy1@gwnu.ac.kr

1. 머리말

도작(稻作)중심의 한민족의 농경민속 가운데 무엇보다 '보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른바 수도(水稻)재배라는 하듯이 물의 공급은 벼농사 풍작의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물이 흔할 때 그 물을 막아서 가뭄이 들 때 농토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보(洑)이다.

'보(洑)'는 가뭄때 물을 가두어 쓰기 위해 강 중간에 막아놓은 인공물로서 흔히 '보물터지다'는 말이 관용어처럼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보에 담아놓은 물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할 때 자주 사용된다.

'보물'은 보에 권 물이나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나 논농사에 필요한 물을 관리하는 공동체의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쌓은 보의 안전을 위해서는 마을단위로 보제(洑祭)를 지냈다. 보가 튼튼

하여 물 걱정없이 한 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비는 기원제로서 보제를 보제사라고도 말한다.¹⁾

사실상 농사가 시작되면 '보물'을 확보하는 것이 벼농사 풍농의 관건이기도 했기에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처럼 자기 논에 물을 끌어내기 위한 '보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가물어서 논에 물을 댈 때는 친척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있듯이 내 논에 '보물대기'는 살기 위한 노력과 다름이 아니었다. 천수답이 대부분인 시절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가두어 벼에 생명수를 붓기 위해 실세없이 파대질을 해대고, 보를 만들어서 보관하였다. 이에 따라 보를 관리하는 보주(洑主)가 등장하고 마을에서는 보계(洑契)를 조직하여 공동운영하였다.²⁾

'보물'을 가둔 곳에는 몇 개의 물구멍을 뚫고 그곳에는 '못중'이라 하여 나무기둥을 막는다. 보의 물이 논으로 나가려면 '못중'을 뿔어야 이 구멍을 통해 '보물'이 '물고'를 통해 빠져 나가게 된다. 따라서 '보물' '못중' '물고'는 하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셈이다. 흔히 물이 터져 나가는 것을 '물고(沓)를 튼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막아놓은 보의 물을 터서 고랑으로 잘 흐르게 하듯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물고'는 농사지를 때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고랑을 낸다는 말이고, 멀리 있는 저수지에서 논으로 물

1) 장정룡, 「보제(洑祭)」『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 2005, 46쪽

1) 강릉학산보의 경우 먼저 보계(洑契)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조직을 구성한 다음에야 비로소 보도랑을 공동으로 뚫었다고 한다. 보계의 운영방법은 (1) 보제(洑財)는 계원(契員) 각자부담 (2) 계보(契洑)밭으로 재산형성 (3) 수전보(首錢洑 혹은 首錢夫洑)라 함은 논이 많이 있는 자 (5) 수전보는 계운영 전반 주관(主管)과 언권(言權)이 강함 (6) 보관(洑管 혹은 洑監)구의 임무 (물감독) (7) 계정(契定)기회는 한식(寒食) 전에 함 (8) 결석(缺席)한 계원에게 결전(벌금) 부여 등이다. 장정룡, 「동해 홍월보와 강원보민속연구」『강원민속학』 25집, 2011 참조.

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에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을 좀 빼야 할 때 ‘물고를 튄다’라고 쓰인다. 이처럼 ‘붓물’이나 ‘물고’는 모두 농경문화의 물과 관련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서양문물이 붓물 터지듯 물려온다.”와 같은 용례처럼 ‘보’나 ‘붓물’은 오래된 한민족의 농경문화의 소산임에도 이에 대한 농경민속학적 접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최근 ‘붓물터지듯’ 국토해양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서면서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지에 설치한 16개보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년간 4대강살리기 사업의 공정을 마무리한 16개의 보역사를 통해 홍수와 가뭄을 막는 강의 수문장 역할과 다양한 강변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에 대한 민속학적 접근을 통해 지혜로운 선각자들의 족적을 찾는 일은 의미있을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수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막으며 농경문화를 계승하고자 자신을 희생하였다. 나보다는 공동이익을 추구한 숭고한 나눔과 희생의 정신은 지금부터 427년전에 강원도 동해시 홍월보를 만든 박지생 선생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보설치와 보제, 보역사놀이 등을 통해서 화합을 이끌고 풍요로운 민족문화를 개척해나간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2. 강원도 동해시 출신 박지생의 보비(洑碑)

박지생(朴芝生)의 호는 동은(東隱) 자는 무숙(茂叔)이다. 그는 1584년(선조17)부터 옛 삼화사 절터아래

에서 현재의 쌍용양회 동해공장까지 김예순 등 지역 인사와 함께 2년 동안 보를 만들고 만 뜨락을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하였다. 이에 경작인들이 그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공덕비를 세우고 매년 추수 후 제사를 지냈다.³⁾

현재의 박지생 공적비각은 삼화동 6통 2반 길가에 있으며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홑처마 목조와가 한옥으로 가로 1.7m 세로 1.5m 높이 1.95m 면적 3.31㎡이다. 현판은 ‘부호군박공지생지유적비각(副護軍朴公芝生之遺蹟碑閣)’이라고 써서 걸었으며 내부에는 비석을 세웠다.⁴⁾ 비석의 규모는 전체높이 151cm, 비신높이 122.7cm 비폭 57.5cm 두께 13.5cm이다.⁵⁾ 박지생 공적비와 ‘김예순유업양세기적비(金禮順有業兩世紀蹟碑)’ 등의 내용은『척주지(陟州誌)』비판조(碑版條)에 실렸다. 조선 정조 때 편찬한 김구혁의 『척주절의록(陟州節義錄)』과 삼척향교 전교를 역임한 최만희가 지은『진주지(眞州誌)』에는 박지생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척주나 진주는 과거 삼척·동해지역을 지칭하는 지명이다.

박공은 휘가 지생(芝生)이며 자는 무숙(茂叔)이다. …진주처사 강릉 최진후(崔鎭厚, 1603~1670)와 홍월평(紅月坪)에 땅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지형을 살펴 수로를 뚫고 농토를 넓혔다. 현종 갑진년(1844)에 속재(俗齋) 김시학(金時鶴)이 월평의 농민과 더불어 공적비를 세울 것을 의논하여 방현(芳峴)아래 봉구(鳳邱)에 비석을 세웠다. 김사혁(金思赫)이 시를 짓고 부백(府伯) 성재(惺齋)이인원(李寅元, 1840~1844 재임)이 주를 썼다.⁶⁾

박지생의 자는 무숙, 호는 동은으로 밀양인이며 진

3) 박지생, 밀양박씨의 후손으로 진사 박세영의 손자이다. 그는 조선 선조 때 삼화동 홍월평에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황무지를 개간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되자 당시 부사였던 신경희는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숙종 15년(1689)에 이계 등이 이 개간지를 팔아넘기려 흥계를 꾸미게 되자, 그의 아들 박사철은 농민들과 더불어 여러 차례 관가에 지정하여 보전하게 되었다. 그후 현종10년(1844)에 김시학이 이곳에 송덕비를 건립하였다. 현재 이곳은 삼화 시가지가 되었고 쌍용양회공장이 들어서 있다. 『두타산의 역사』 동해향토사록 제11집, 동해문화원, 2009, 445쪽

4) 장정룡, 『동해시 삼화동의 기층문화』 동해문화원, 1998, 193쪽

5) 『두타산의 역사』 동해향토사록 제11집, 동해문화원, 2009, 220쪽

6) 金九赫, 『陟州節義錄』十四張 “朴公諱芝生字茂叔…與眞珠處士 江陵崔公諱鎭厚 經始洪月坪開墾 相地形疏川水路 廣拓農土 民蒙其惠 憲廟甲辰 俗齋江陵金公諱時鶴 與月坪 田民勸議 功績碑立 于芳峴下鳳邱 金思赫撰序 府伯惺齋 李公寅元撰誌”

사 세영(世榮)의 손자이다. 삼화리 홍월평에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버려두었던 땅을 개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크게 이바지 하였다. 삼척부사 신경희(申景禧, 1600~1602년 재임)⁷⁾ 그에게 호역을 면제해주었다. 숙종을사년(1725, 영조1) 이계(李桂), 이빈(李彬) 등이 기통헌(奇通獻)의 소유인 두타산 유두원(楡頭原)의 논을 매수하여 이 토지에 합치기 위해 홍월평까지 영빈궁(寧嬪宮)에게 팔려고 했다. 이때 박지생의 아들 사철(斯哲)은 농민들과 함께 여러 차례 진정을 당국에 호소하여 다시 찾게 되었다. 그 후 헌종 갑진년(1814, 헌종10) 속재(俗齋) 김시학(金時鶴)의 주장으로 송덕비를 세웠다. 김예순의 호는 운송재이며 삼척인이다. 박지생과 함께 홍월평의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개간했다. 선조(1567~1608 재임) 임금의 승지의 벼슬을 증직했고 농민들이 비각을 세웠다.⁸⁾

박지생, 김예순에 이어서 홍월평 보를 쌓아 농토를 넓힌 진주처사(혹은 취병처사) 최진후는 하늘이 낸 출천지효자(出天之孝子)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진후(1603~1670)는 삼척 홍월리에서 태어나 9세부터 공부 시작하여 16세에 소학과 가례를 익혀 실천했다. 34세 때 모친이 병환으로 고생하자 꿩고기와 잉어를 구해 봉양하고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위독한 모친을 소생케 한 효자다. 38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월장을 지내고 3년간 시모살이를 하였다. 48세에 정려를 받았는데 생전에 정려를 받은 것은 드문 일이었다. 현재의 효자각은 동해시 삼화동 산2번지 야산에 있다. 삼척도호부에서는 1658년 그의 감교(監校)에



힘입어『가례(家禮)』를 간행하였다.⁹⁾ 삼척부사 허목은 김점, 홍양해와 더불어 북평의 3대효자라 칭하고 제사를 지냈다.¹⁰⁾

『진주지』에 의하면 “홍월보는 삼화에 있었는데 인조 병술년 박지생이 물을 끌어와 밭도랑을 만들었으며 농부들이 매년 보를 수리하고, 아울러 김예순을 제사지낸다.”고 하였다.¹¹⁾ 그러나 홍월보와 관련된 인물인 박지생은 1584년부터 이곳의 보만들기를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김예순이 도왔고 후에는 최진후가 도왔다. 이들은 농토를 개간하고 보를 만들어 물을 끌어들이어 넓은 전답을 확보하였는데 이들의 공적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해년(1899) 겨울 12월에 내가 명령을 받들어 삼척부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부지(府誌)에는 “향로(鄉老) 박영백(朴荅百)에게 5세손 지생(芝生)이 있어 땅을 가려서 물을 끌어들이어 관개(灌漑)하여 이익을 본 논이 거의 1천경(頃)이 넘었으며¹²⁾ 북평의 오거(五渠)와 박거(朴渠)는

7) 襄在弘 譯, 『國譯 陟州先生案』 삼척문화원, 2003, 86쪽 “부사 신경희 통훈, 만력 28년 경자년 선조대왕 33년(1600) 5월에 왔다. 향교 명륜당과 응벽헌, 증서헌을 중수하였다. 임인년(1602:선조35)10월에 임기를 마치고 갔다.”

8) 崔晚熙, 『眞州誌』 回想社, 1963, 二十一張 慈善條.

9) 『家禮』 戊戌(1658년)九月 三陟府開刊 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巡察使 姜栢年, 通訓大夫行三陟都護府使 李聖基, 監校 幼學 崔鎮厚 崔東屹 金鑽(필자 소장)

10) 『東海市孝烈資料集』 동해시, 2001, 29쪽

11) 위의 책 堤堰條 “紅月泚在三和 仁祖丙戌 朴芝生 引水穿渠 田夫每年修泚 并金禮順致祭”

12) 경(頃)은 농토의 면적단위로서, 중국 주공이 처음 제정한 도량형 면적단위다. 길이가 19.496cm인 주척 64만평 방척으로 그 넓이는 24.326㎡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에는 1경의 넓이가 25.945.9㎡였다.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5년이 지난 갑진년(1904)에 이르러 그의 6세손 시협(始協)이 그의 조상 사적 후서(後序)를 가지고 와서 보이고는 이어서 나에게 비석의 뒷면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개 이 서문은 곧 김생이 불빛에서 생각하여 지은 것이다. 김생은 학행과 문체가 뛰어났으며, 반드시 아침을 좋아하지 않는 자로 하물며 그 말의 상세함과 또한 다함이라! 나 또한 어찌 군소리 할 수 있겠는가? 삼가 그 서문을 살펴보니, “삼척의 북쪽 1여리 정도에 백령과 취병산의 사이에 홍도리(紅桃里)가 있으며 마을에는 하나의 작은 들판이 있는데 둘레는 6~7리 정도이다. 그 땅은 농사를 짓기에는 적당하나, 특별히 관주(灌注)할 물이 없었던 까닭에 한번 바라보아도 황무한 것이 마치 버려진 땅과 같았다.”

만력 갑신년(1584, 선조17) 봄에 이르러 부호군인 박공이 소리쳐 말하기를 “이곳에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어찌 개간할 방법이 없겠는가?” 마침내 도랑을 파서 개통할 계획을 세웠으며, 따르기를 원하는 수십 명 중에서 힘을 발휘한 사람은 김예순(金禮順)이었다. 깎아진 돌로 개울을 통하게 하고 쪼개진 나무로 물줄기를 끌어들이었다. 수 년 동안 공들인 결과, 산의 굴곡을 따라 촌을 둘러싸고 구불구불 가는 모양이 거의 10여리에 가까웠다. 이로부터 논밭이 넓게 개척되고 각각 경계가 정해져 쟁기를 맨 사람도 가고 곡식을 심고 가꾸는 사람도 갔으니, 토질의 비옥함이 읍에서 으뜸이었다. 그때 재상 신경희(申景禧)가 듣고 가상히 여겨 그 호역(戶役)을 밝혀서 표창하기에 이르렀다.

그 해 붉은 뱀을 만나 불행히도 간사한 무리가 있어 현혹시켜 우예지송(虞芮之訟)¹³⁾ 야기시켰다. 공은 그의 자손 사철(斯哲)로 하여금 모든 농민들을 인솔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도록 하였는데, 마침내 의리의 싸움에서 이겼던 것이다. 이에 따라 백성의 생활은 넉넉한 삶에 이로움을 더하였던 것이다. 물론 공부(公簿)에 실린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매년 역시 80여 금(金)이 되었다.

지금까지 3백여년 동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힘입은 바가 산과 바다가 높고 깊은 것과 같이 이후 영구히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적과 효력에 힘입은 사람을 더욱 어찌 가히 헤아릴 수 있으리오? 그 후손에게 묻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너희 선조의 빛나는 업적이 이미 읍지에 실려 한 집안의 기록이 영원히 전해지지 않음이 없는데, 어느 때에 금석을 깎아서 발두독에 세워, 후에 발가는 자와 수확하는 자로 하여금 그의 공적을 모두에게 영원히 알게 하기 위하여 노래로 그를 칭송하겠는가?”

아! 선조의 공적을 큰소리로 말한다면 삼척 백성들도 그들처럼 은덕을 입었는데, 오직 내가 궁핍하여 선조 묘에 해마다 올리는 제수도 오히려 성실한 것 같지 않은데, 어찌 이것에까지 여력이 미칠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심히 슬프다. 아마도 이 토지를 지어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한다. 그러나 마음과 힘을 쌓고 사용하여서 토지를 넓게 개척하는 사람이 남을 위한 일에는 후덕하고 사사roi 경영하는 데에는 야박한 것을 보였으니, 더욱 어찌 현명하고 또한 위대하지 아니하겠는가? 옛말에 이르기를 “정성이 미치면 금석도 뿜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진실로 많은 논밭은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이 감동하고 사모하게 하여 그 근본을 잊지 아니하고 있는데, 한 조각의 돌은 어디에 있는가?

마침내 그 말씀들을 엮어서 한결같이 그 후손을 위하여 권면하고 한결같이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넉넉히 타 이룬 것이니, 이것이 김생이 서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함 함께 하천 위에다 돌을 깎아 세우고 그 면에 큰 글자로 ‘부호군박공지생공적비(副護軍朴公芝生功績碑)’라고 썼다. 지금 이후 척주의 사람들은 비로소 은혜를 알고 공적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옛날에 공이 수로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었으므로 후대 사람들이 돌이켜 생각하여 그 일을 노래하여 말하기를 “가래를 어깨에 메니 구름과 같

13) 우예지송은 우, 예 두 나라 임금이 서로 밭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다투다가 결말이 나지 않으므로 서백(西伯, 주나라 문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주나라 경내에 들어가니, 밭가는 자는 두령을 양보하고 길가는 자는 길을 양보하여 겸양의 미덕이 일반 민가에 행해지므로, 이를 본 두 임금은 우리가 싸우는 일은 수치스런 노릇이라 하여 서백에게 가지도 아니하고 돌아와 서로 밭을 양보하였다는 고사다.

고, 도량을 트니 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지금 비석을 세우니 어찌 노래로 송축함에 비하리요? 내가 척주에 가서 일찍이 그 공적과 그 여러 후손들의 청함을 차마 멀리할 수 없어 마침내 서문 속 내용을 보충하여 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경과를 그를 위하여 기록한다.

알봉(闕逢) 집서(執徐) 즉 갑진년(1844) 가을 9월 일에 삼척도호부사 겸 강릉진영병마동첨절제사 성재 이인원이 글을 짓다. 호서사인 윤의목이 글씨를 쓰다. 박공의 후손인 시형, 시완, 시달, 도량을 개창할 때 함께 일한 사람 정극계, 진덕인, 전부 최창열, 최창필, 공의 후손 덕찬, 이삼, 맹건 갑관 일용, 간사에 최백영, 김한규, 김동득, 진봉익, 장복관, 김이열, 이정수, 김관열, 김지순, 김용운, 김일갑, 장진식¹⁴⁾

척주(陟州)는 옛날에 실직군(悉直郡)이었다. 군의 북쪽 30리에 산이 있는데, 추전(秋田)이라 하여 추전아래에는 넓은 땅이 있었는데, 부르는 사람들이 홍월평(紅月坪)이라고 하였다. 이 넓은 들은 옛날에 황무지였으며, 산은 낮고 계곡은 깊고 험준하며 오래된 나무가 총총하고 큰 초목의 잎이 우거져 사람들이 살 수 없었다.

명나라 만력 갑신년(1584)에 군왕의 31세손인 김세순이 있었다. 땅의 좋은 형편을 바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힘써 개척을 꾀한 동지 수십 명이 있었으나 함께 없어서 전해지지 않는다. 그의 아들인 유업과 함께 그 지혜와 심려를 다하고 그 역량을 다하여 산을 뚫어 도량을 내고, 밭도량을 쳐서 붓도량이 되니 멀리 돌아 구불구불하다. 물을 따라 10여정(程)에 이르면 마침내 이익을 취하게 되었는데, 눈에 물을 대고 곡식의 씨를 모두 뿌리니 1천년 동안 척박했던 들로 하여금 마침내 옥토로 만들게 되었으니, 백성들이 앞뒤로 이루고 모은 간전(墾田)에서 해마다 곡식이 2천말이나 많이 거두었다. 전해 오는 말에 “현명한 사람은 이로움을 근심하는가? 토지를 측량하고 물길을 보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공이 마침내 이것을 가능케하여 후세 사람들을 먹여 살린 지가 지금으로부터 3~4백년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입지 않음이 없다.

오호라, 공은 거의 신과 같은 사람이었다. 옛날 노인 중에서 그 터를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김공거(金公渠)’라고 말한다. 후인들 중에서 그 뜻을 경작하는 사람은 모두가 “김공의 공덕비가 갈라져 부서지지 않고 영원히 천년동안 세워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건륭(乾隆, 청나라 고종때 연호로 1736~1795년이다) 연간에 이르러 경사에 이빈(李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할아버지에게 말하여 일찍이 입안한 것을 찾아내어 이에 땅을 경영하는 읍에 고하니, 이들의 다툼이 그침이 없었다. 마침내 공의 증손자 원봉이 서울에 원통함을 호소하여 지명이 서로 달라 판결이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후에 갑술년(1814)에 영빈의 관노가 공문을 가지고 와서 이따잉 관에 매입되었다고 말하니, 무리를 결성한 백성들이 실망하며 소리를 높여서 울부짖으니, 진도(眞塗) 원봉이 이를 민망히 여겼다. 이에 슬픈 표정으로 “우리 선조의 공적이 차마 퇴락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도리어 관에서 옥에 가두니 옥살이 한지 수개월만에 장차 추관에게 아뢰어 비로소 명백히 해결될 수 있었다. 마침내 도신인 음장에게 묻고 칙서를 내려 다시 민전(民田)이 되어 옛 것과 같이 되었으니, 이로부터 집같이, 밭 같이 된 것이 지금까지 이른 것이다. 이것은 대개 김공의 2세 동안의 아름다운 공적과 융성한 은택으로 영원히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 할아버지께서 도량을 파서 통하게 한 후, 마침내 자손들이 구한 땅은 퇴락함이 없었으며, 그 선조와 자손들이 조상의 덕을 후세에 드러내고 세웠으니, 그 효시가 김씨 가문으로 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여 척주의 백성들 역시 대부분 행복해하고 있다. 척주의 백성들은 마침내 무리들에게 모의하여 말하기를 “김공 2세간의 공적과 덕망은 부지에 실려서 공문에 부착되어 1천경의 벌려놓은 나무의 가지와 낱알들이 모두가 김공의 옛날 자취다. 한 조각의 공은 돌을 기대함 없이 쓸쓸한 바람과 찬 비 사이에서 마멸되었으나 공의 아름다운 자취를 높이 들어서 빛나게 하고 후세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러러 보게 하는 것이니 이것 역시 공이 먹던 것을 먹고 공의

14) 『東海市 金石文集』 동해문화원, 2002, 153~155쪽

성의에 보답한 것이다. 귀부가 우뚝 서서 이 도랑과 함께 백만 천만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니 돌에 새기고 공적을 기록하는 일이 없지 않다. 그러나, 농민들이 부지런히 일하며 그 역사(役事)도 할 겨를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 행한 것이 어찌 내 고향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의 허물을 위하는 일이겠는가?”라고 하니 무리들이 “좋다”고 말하였다.

이에 돌을 잘라서 조각하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글은 나에게 요구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백성들이 공적 있는 사람에게 제사지낸다”고 하니, 김공 같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역시 옳은 일이니, 하물며 비석에 그치겠는가? 감히 문사(文辭)로써 아니함이 없이 마침내 그리 한 것이다. 먼 산은 푸르고 푸르며 홍월평 넓고 넓어 아득하니, 두 공의 공적은 천년가도 잊지 않을 것이다.

3. 강원도 동해시 보역새놀이

동해시 보역새(洑役事)놀이는 삼흥동 지역에 전승되는 보민속놀이이다. 이 지역에서는 ‘역사’를 방언으로 ‘역새’라 부른다. 이 놀이는 조선조 현종 신축년(1661)에 삼척부사 허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하는데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제3회(1985년)와 제12회(1994년)에 출연하였으며 연출과 시나리오를 김시래가 구성하였다. 1985년도 출연당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⁵⁾

옛날 이 지방 동해시 삼흥동에는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모심기 때가 되면 농민들은 논물대기에 큰 고역을 겪어야 했으며, 이 논물대기로 말미암아 분쟁도 자주 일어났다. 개인 대 개인의 분쟁은 고사하고 때로는 마을 대 마을의 분쟁으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

러나 마을간의 분쟁은 화합으로, 물대기의 고된 작업은 놀이로 승화되었다. 이 놀이는 두 마을의 일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동시에 놀이로 이어져 오다가 약 60년 전에 없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죽림동(竹林洞) 사람들은 도랑에 물을 막고 논물을 대니 논물이 충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모심기를 할 수 있었으나 아랫마을 홍월평(紅月坪) 농민들은 물이 없어 모심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안절 부절하다가 “물을 같이 써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웅성대기 시작할 때 마을의 용감한 청년들이 윗마을에서 막아 놓은 물고를 허물어 버렸다. 이것을 윗마을 농민들이 보고만 있을 리 없었고 마침내 석전(石戰)이 벌어졌다.

이 소문을 들은 수좌노인 부사 허목은 농민들로 하여금 보를 보수하면 수량이 많아질 것이니 보를 쌓아 그 물을 나누어 쓰도록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보의 길이를 반분하여 경쟁을 붙였는데 진편에서는 술 한 말을 내도록 했고 보역새의 지루함을 잊게 하기 위하여 농요를 부르게 하니 마을 농민들은 자기 마을이 질세라 목두질, 둔내질, 가래질과 또 지고이고 열심히 돌과 흙을 나른다. 마침 승부가 가려졌고 보가 완성되니 두 마을 농민들은 진 편에서 가지고 온 술을 나누어 마시고 한마당 놀이판이 벌어진다.

동해지역의 농가에서는 농번기가 다가오면 농부들이 물고를 거두기 시작한다. 이 작업을 보역사라고 하는데 동해시 삼흥동 지역에서는 ‘보역새’라 부른다. 이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수로(水路)를 다듬는 일이라 곡우(穀雨)가 지나면 눈 녹은 물이 소실되지 않도록 화창한 날을 정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수로를 보수하는데 봄을 맞아서 마을사람들이 처음 모이는 연중행사로서 농경 시작인 곡우절과 연관이 있다.¹⁶⁾ ‘보물싸움’을 상극의 ‘다툼’이 아니라 상생의 ‘놀이’로 승화시킨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그

15) 장정룡·이승철, 『동해시의 민속예술』 동해문화원, 2004, 15쪽

16) 장정룡, 「강원지역의 곡우날 풍습」 『우리문화』 한국문화원연합회, 2009. 4월호, 곡우는 24절기의 여섯 번째 드는 절기로서 음력 3월, 양력 4월 20일경이다. 곡우의 뜻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리름지게 한다는 뜻으로 이때 못자리를 마련하고 범씨를 담그는 등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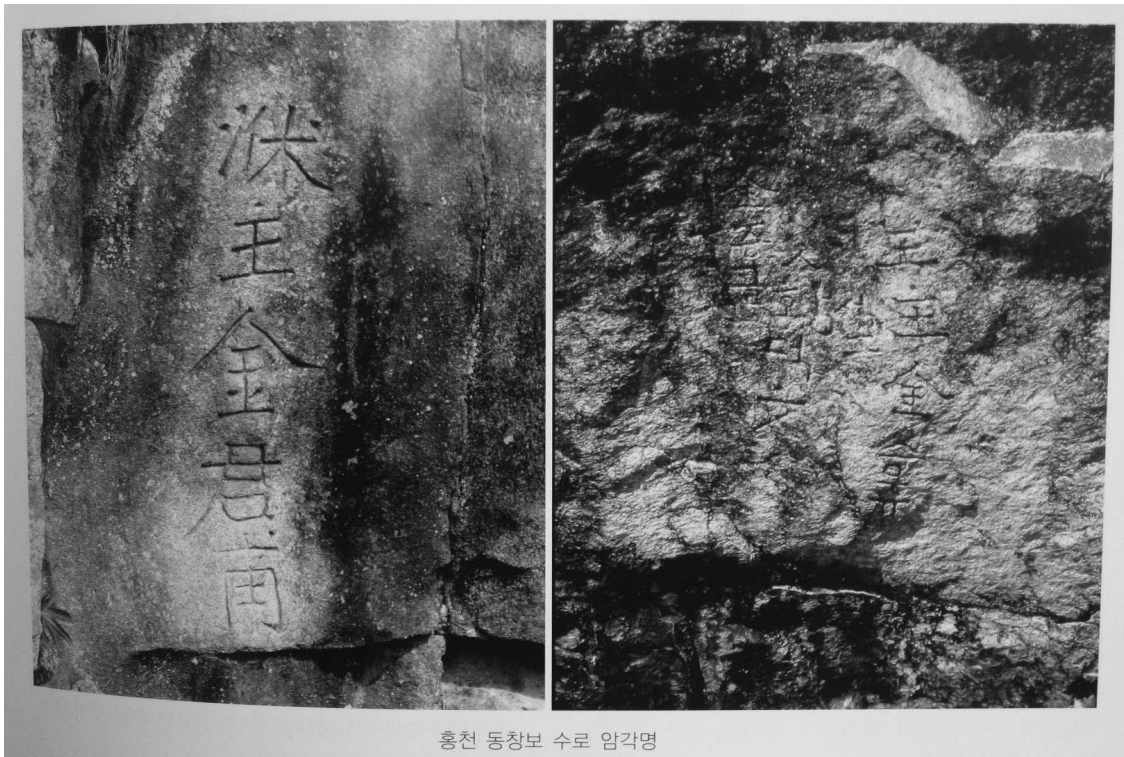
런 점에서 수희(水戲) 양상을 보여주는 동해보역새놀이, 강릉학산뱃물싸움놀이는 '보'와 '뱃물'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놀이문화이며¹⁷⁾ 홍천동창보와 양구동두보는 오늘날까지 전하는 농경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에 위치한 동창보(東倉洑)와 수로(水路)는 내촌면 물걸리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하여 1800년경에 설치한 보와 수로로서 강원도 기념물 제65호(1994년 4월 25일 지정)로 지정되었다. 이것은 서석면 수하리에 보를 막고, 내촌면 물걸리 동창마을까지 약 2km의 수로를 축조하여 물을 끌어다가 쓴 것으로 동창보 중간지점의 동북쪽 암벽에는 보주(洑主) 김군보(金君甫)라는 글씨를 음각으로 새겼다. 개인이 보주라는 특이성을 갖고 있는데¹⁸⁾ 동창마을은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어 김군보의 뱃물을 사용하였다. 매년 개수(開水)를 할 때 산신(山神)과 지신(地

神)에게 제사를 올려서 보의 보호를 받고, 풍년을 기원했다.

강원 양구군 방산면에는 아홉 개의 보가 있는데 이 가운데 동두보와 장평보에서 보제를 지냈다. 동두보는 10리에 이르는데 송현리와 자월마을 사람들이 매년 사월초파일 오시(午時)에 보 위쪽에 제물을 차리고 보제를 올린다. 제사 대상 신위는 산천지신, 산택지신, 박장군지신 등으로 박장군은 조선 숙종때 이곳에 살았던 박제룡으로 힘이 세어 장사로 소문이 났다. 그가 겨울에 박달나무 가래로 보를 쌓았다고 전한다.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2리에서는 첫 농사가 시작될 때가 되면 보를 관리하는 보유사(洑有司)가 “보역사 나와주십시오”하고 몽리자(蒙利者)들을 불러 보를 수리한다. 이때 보에 쌓여 있는 흙이나 나뭇잎 따위를 제거한 다음 제사를 지낸다. 농업용수나 식수의 확보를 위한 용수제는 강릉 임경당 용수제, 양구 대



홍천 동창보 수로 암각명

17) 장정룡, 『韓國水戲文化 淵源考』 2009 화천 세계강문화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9, 209~217쪽

18) 『강원문화재대관』 도지정편 II, 강원도, 2006, 134~135쪽

정리 용수제, 횡성 물할머니 제사, 동해 동호동 물지개놀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신제의(水神祭儀) 민속이 오늘날까지 강원지역에 고루 전승되고 있다.¹⁹⁾

동해시 보역새 놀이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놀이의 기원은 조선 인조 병술년(1646)에 시작된 놀이이다. 동해시 삼흥지역에는 홍월평이란 작은 평야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다 그러했듯이 이 지역 또한 제대로 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농사철이 다가오면 농사의 가장 큰 관건인 ‘논물대기’ 문제로 말미암아 마을과 마을 간은 물론 개인과 개인 간에도 큰 갈등을 겪었으며 분쟁도 자주 일어났다. 가뭄이 심한 해는 마을과 마을 간의 분쟁으로 시작한 ‘논물대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나라에서도 큰 문젯거리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사람들이 급기야 홍월보라는 보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 마을간의 분쟁은 화합으로, 파대를 이용하여 물을 대던 고된 작업은 ‘마을놀이’로 승화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곧 삼흥마을 보역새놀이이다. 이 놀이는 삼흥마을의 아랫마을과 윗마을에서 일 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동시에 두 마을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주는 큰 놀이로 이어져오다가 최근 약 70여년 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하였다.²⁰⁾ 보역새놀이의 모심기와 보역새 노동요는 다음과 같다.

심어보세 심어보세 요모조모 심어보
 세 오종종종 심어보세(후렴)
 사해청생 농부들아 신세타령 하지마
 라 오종종종 심어보세
 사농공상 생긴후에 귀중할손 농사로
 다 오종종종 심어보세
 호미매고 콧노래를 시화연풍 낙이로
 다 오종종종 심어보세

싸게싸게 심어주소 오늘해도 건주간다 오종종종 심
 어보세
 서마지기 논배미가 명석만치 남았구나 오종종종 심
 어보세
 뒷동산에 살구꽃은 가지마다 봄빛이라 오종종종 심
 어보세
 심어보세 심어보세 오종종종 심어보세 오종종종 심
 어보세

-모심기노래-

뒷동산의 살구꽃은 가지가지 봄빛이요 에화 역~사
 (후렴)
 앞뭇가에 창포잎은 즐기즐기 음이난다 에화 역~사
 녹양방초 저문날에 석양풍이 슬슬분다 에화 역~사
 시금털털 막걸리에 메뚜기다리 안주에다 에화 역~사
 여보시오 권님네야 해가지고 달이뻗다 에화 역~사
 뱃구래가 쪼러붙어 등대뻗와 사돈한다 에화 역~사
 자고나도 일일하고 먹고나도 일일로다 에화 역~사
 향우장사 씨가없다 주경야독 힘쓴후에 에화 역~사
 당상학발 천년수요 실하자손 만세영을 에화 역~사

-보역새노래-



19) 장정룡, 「강원도 水神祭의 연행양상고찰」 『아시아 강문화 유산과 현상』 2008화천쪽배축제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8, 207~225쪽

20) 장정룡 · 이승철, 『동해시의 민속예술』 동해문화원, 2004, 70쪽

4. 맺음말

강원지역 보민속과 관련하여 조선 선조 때 동해홍월보의 박지생, 김예순과 숙종 때 양구동두보의 박제룡, 1800년경 홍천동창보의 김군보라는 인물들은 자신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타애인(利他愛人)의 뚜렷한 행적을 남겼다. 보제(浹祭), 개수제(開水祭), 수제(水祭)를 비롯하여 마을 공동의 풍농을 위해 술선하여 보역사에 남다른 공적을 이룬 인물에 대한

공동치제(共同致祭)가 주민들에 의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강원지역 두레농경의 중요한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 농경의 필수적인 물을 확보하고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보역사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보쌍기 행적이 후대에 알려진 인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인물들의 전기는 귀감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강원지역 보민속 전승을 통해서 선조들의 물에 대한 인식과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家禮 上下, 三陟府開刊, 1658
2. 金鼎卿, 三陟鄉土誌, 三陟教育區廳, 1955
3. 崔晚熙, 眞珠誌, 回想社, 1963
4. 楊口郡誌, 양구군, 1984
5. 강원도의 전통민속예술, 강원도, 1994
6. 김시래, 우리고장 세시풍속, 동해문화원, 1994
7. 東海市の 歴史와 文化遺蹟, 관동대박물관, 1996
8. 完譯 陟州誌, 三陟市, 1997
9. 崔永熙·崔竣杓, 翠屏處士遺事(全), 文旺出版社, 1998
10. 장정룡, 동해시 삼화동의 기층문화, 동해문화원, 1998
11. 장정룡·양언석, 동해시 누정·서원·비각지, 동해문화원, 1999
12. 두창구, 동해시 지역의 설화, 동해시, 2000
13. 배재홍·옴김, 國譯 陟州誌, 삼척시립박물관, 2001
14. 東海市 孝烈資料集, 東海市, 2001
15.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16. 장정룡·이승철, 동해시의 민속예술, 동해문화원, 2002
17. 東海市 金石文集, 동해문화원, 2002
18. 裴在弘 옴김, 국역 陟州先生案, 三陟文化院, 2003
19.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 2005
20. 江原文化財大觀, 道指定篇 II, 강원도, 2006
21. 차장섭 외, 삼척지방의 金石文과 記文, 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06
22. 두타산의 역사, 동해향토사록 제11집, 2009